

☎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7, 8F [<http://www.kma.org>]/전화(02)6350-(내선번호)/전송(02)792-1296
전략홍보국장 김광석(6501)/ 홍보팀장 박미경(6676)/ 과장 김철욱(6618)/ E-mail: leo0817@kma.org

문서번호 대의협 제472-4470호

시행일자 2019. 7. 16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보건위생학적 사안 방송 인터뷰 등 입장 표명시 협조요청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국민 보건위생과 밀접한 사안들에 대해 우리협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사와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, 관련 전문가풀 및 생성자료를 활용하여 의료계의 견해가 언론에 신속하게 인용될 수 있도록 홍보부서에서 언론과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

3. 일례로 최근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라돈 검출 침대, 미세먼지, 홍역 확산 등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잘못된 정보로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언론 인터뷰, 기자회견 개최, 대국민 행동요령 제작·배포, 유튜브 채널(KMA TV, 닥터in) 등을 통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의학적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.

4. 이 같은 활동들이 보다 높은 전문성과 신뢰도를 갖추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창구 일원화를 통해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며, 이는 국민들에게 올바른 의학적 정보 및 전문가 견해를 전달하고 의료계의 대정부 요구사항 등을 발표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.

5. 이에, 귀 회 소속 회원 중 보건위생 관련 입장 표명 등의 언론 요청을 받으실 경우 우리협회 홍보부서와 사전 협의(전화: 02-6350-6618, 6523 / E-mail: kmasns@naver.com)를 거쳐 의료계 입장이 조율되어 개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 드립니다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※ 수신처 : 각 시도지사회장, 대한의학회장, 각과 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, 각과 개원의사회회장,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, 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, 대한공중보건협의회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